

輸出增大와 國際競爭力強化

金 永 民

目 次

1. 지난해의 韓國經濟
2. 世界貿易構造 推移와 輸出動向
3. 國際競爭力 強化에의 課題
4. 結 言

1. 지난해의 韓國經濟

60年代 兩次に 걸친 經濟開發計劃의 成功的인 推進은 量的인 高度成長이라는 結實外에 급격한 流動性的인 膨창과 産業間의 不均衡成長 그리고 國際收支의 逆調를 深化시켜 주었다.

韓銀이 발표한 '70年度 推計에 따르면 國民總生産은 經常價格基準으로 2兆 620億원에 달하여 그 前해인 '69年度보다 名目上으로 25.1%가 增加했으며 物價등귀를 除去한 '65年 不變市場價格으로는 1兆 4,335억원에 달해 9.7%의 實質成長率을 記錄했다. 이 9.7%의 實質成長率은 1次 5個年計劃期間中('62~'66年)의 平均成長率 8.3%에 비해 1.4%가 높은 水準이나 '68年의 13.3%, '69年의 15.9%에 比하면 상당히 鈍化된 伸張率이라 하겠다.

1人當 GNP의 경우는 81,807원(223.3弗)으로 69年度보다 25.3弗이 增加되어 史上 처음으로 200弗 水準을 넘게 되었다.

한편 國民總生産을 産業別로 보면 農林·漁業은 28.4%, 鑛工業은 21.7%,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서어비스業은 49.6%를 나타냄으로써 각각 農業部門은 2%, 鑛工業部門은 17.4%, 其他서어비스業部門은 10.2%의 成長을 記錄하고 있다.

그런데 生産面에서 高度成長을 持續하고 있는 製造業은 國內固定投資增加率이 民間投資의 경

우 '69年 18.5%에서 '70年은 11.6%로, 政府投資의 경우는 同期間에 58.3%에서 12.3%로 그리고 機械工業部門은 17.9%에서 11.2%로 投資規模에서 相對的인 構成比重이 減少되었음에도 不拘하고 成長하고 있다. 이 成長의 內容을 보면 化學工業·石油 및 石炭製品·纖維工業·飲料品工業 등은 높은 伸張率을 나타내고 있는 反面 輸送用機械·一般機械·金屬工業 등은 成長이 약간 鈍化되고 있었다.

貿易構造面에서 보면 商品輸出의 경우에는 大望의 10억불 高地를 達成함으로써 우리의 持續的인 成長에 또하나의 밝은 展望을 던져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經濟成長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現實은 對內的인 條件이나 國際的인 環境이 결코 單純한 것만은 아니며 특히 輸出目標의 達成이 經濟開發과 直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輸出增大를 위한 競爭力 基盤의 確立은 보다 더 切實한 課題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2. 世界貿易構造 推移와 輸出展望

파운드貨와 달러貨의 國際基軸 通貨로서의 動搖에서 派及한 西歐主要通貨의 弱化는 世界經濟構造의 基調的인 基盤을 變化시키고 있으며 結果的으로 이와같은 諸要因은 輸出立國에로의 길을 摸索하려는 우리나라의 貿易展望을 결코 밝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번 美商務長官의 來韓을 契機로한 韓國纖維製品의 對美輸出의 自製要請 등은 우리의 持續的인 이고도 安定的인 輸出伸張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第二次 大戰後 달러 體制 即 美國을 中

心으로한 世界市場의 構造가 '58年~'60年頃부터 危機에 처하고 戰後 亂동 動搖를 繼續하여 온 파운드貨와 더불어 國際基軸通貨로서의 自信을 喪失하여가고 있다.

이러한 事態의 進展은 單純한 表面上的 國際收支調整의 問題에 그치지 아니하고 世界經濟構造의 基調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國際通貨體制의 危機는 지금 金融措置 自體보다도 國際政治力에 依하여 暫定的으로 小康을 維持하고 있으나 몇차례의 골드 럿슈가 證明하듯이 根本的인 對策은 何等 構想되지도 않고 着手되지도 않고 있는 形便이다.

國際通貨體制의 米봉적 措置裏面에 各國은 自國通貨의 擁護를 위한 陰性的인 國際收支改善의 努力이 當然히 貿易의 國際競爭을 促求하고 있는 것으로 연역되고 있다.

通貨防衛體制의 強化는 첫째 先進國間의 競爭을 激化하고 둘째 南北間의 成長格差를 더욱 深化하는 方向으로 展開되고 있어 이데로 간다면 開發途上國들의 輸出伸張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豫見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貿易對象國으로서 日本에 對하여서는 輸入依存도가 美國에 對하여서는 輸出依存도가 增大되는 傾向이 있다고 指適한 評價敎授團의 論評과 一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兩國 모두 世界에서 1, 2位를 차지하는 G. N. P. 總額을 자랑하는 經濟力을 가지는 國家로서 美國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달러貨防衛에 골몰하고 있고 日本은 그 經濟餘力을 資本輸出에 活路를 찾고 있음을 勘案할 때 美·日에 輸出增大를 꾀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國別輸出實績面에서 數年來 首位를 占하고 있는 美國市場은 그 世界經濟上의 地位와 달러貨의 動搖 때문에 輸出市場으로서의 絶對的인 輸出增大를 꾀한다는 것이 거이 不可能한 것으로 把握하고 있고 더욱이 香港·自由中國 및 특히 日本이 競爭關係에 있고 그것이 더욱더 加熱될 것이라는 見地에서 보면 前途가 크게 希望的인 것이 되지 못되고 있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로 되고 있다.

또한 美國市場은 日本을 除外하고는 모두 開

發途上國家라는 같은 입장에 陷入할 것도 짐작되며 그것이 美國의 貿易政策보다도 世界政策 또는 亞細亞政策에 依하여 左右되는 明暗相도 豫見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越南特需에 關係되는 輸出展望도 가지가지라 하겠다.

越南問題가 早期妥結이나 長期持續이나 하는 것은 지금의 國際情勢나 파리會談을 가지고는 豫斷할 수 없으나 越南戰의 非美國化의 方針이 뚜렷한 現在로서는 소위 「포스트 베트남」은 最少限 지금까지의 高價한 戰爭이 安價한 戰爭으로 變貌하여 戰爭特需의 展望은 漸次 어두어질 것이다.

戰後復興의 參加에 依한 特需도 美國의 달러防衛가 緊縮一路에 있는 以上 크게 期待할 것이 못되리라라고 豫測이 되는 것이다.

國際通貨體制의 動搖가 越南戰의 수행과 密接한 關聯이 있다고 보는 識者들의 見解에 따르면 越南戰爭의 歸結도 그러한 方向에서 設定되고 또 되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對美輸出依存도가 꽤 높고 또 派兵國家로서의 立場을 가진 우리나라로서의 輸出展望은 이제 그 構造를 改革하고 「그로발」한 見地에서 輸出擴張의 態勢를 갖춘 充分한 轉換期에 直面하고 있는 셈이 된다.

따라서 우리 經濟의 持續의 이고도 安定的인 發展을 위하여서는 어느모로 보더라도 輸出增大를 위해 努力하여야 할 必要性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現在 展開되는 國際的 與件은 지금까지 分析한 바와 같이 밝은 것이 되지 못한다는 事實을 充分히 認識하고서 對處해야 할 것이며 또한 總經濟力 水準에 비추어 限界가 오고 둔화 傾向이 있을 것을 豫知하고 그것에 對備하여 充分한 對策이 講求되어져야 한다.

3. 國際競爭力 強化에의 課題

우리나라의 輸出産業이 國際競爭力을 強調하게 된 것은 第一次經濟開發五個年計劃期間中 年平均 43.9%라는 輸出伸張率의 實績과 그것에 이은 第二次經濟開發五個年計劃期間中의 높은 輸出增加에 따른 輸出立國이라는 果敢한 政策目標에 依하여 힘입었다 하겠으나 아직은 摸索段階에 있고 지금부터가 試練期라 아니할 수 없다. 國民

經濟力과 産業의 基盤으로서의 國際競爭力의 培養은 이제부터라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經濟開發이 外資의 導入에 크게 依存하는 形便에 國際競爭力을 갖춘다는 것은 大瑞히 어려운 일로서 先進國과의 그것도 後進國과의 그것도 모두 低位에 있는 實情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國際競爭力 要因으로 指適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 資本力
- (2) 技術力
- (3) 販賣力
- (4) 企業體質
- (5) 産業體制
- (6) 製品

이들중 그 어느 것을 들추어 보아도 國家施策으로서의 強力한 輸出支援이 없이는 스스로 내 밀탄한 것이 별로 없고 이제부터 힘주어 培養해야 할 것 뿐이다.

첫째로 資本力을 따져본다면 우리나라는 소위 財閥들의 大企業이라는 것이 그 資本力 規模에 있어 先進國의 中小企業規模이고 國際競爭力을 發揮할 수 있는 規模의 經濟를 누릴만한 것이 稀貴하다는 事實이다.

그리고 그러한 企業規模조차도 援助·金融特惠·租稅特惠와 特히 近年에 와서는 借款特惠라 하여 形成된 것이어서 나중에 論할 企業體質의 問題에 關聯되는 것이지만 自己資本比率이 적어서 資本力에 있어 國際舞臺에서 互角을 겨룰 날은 아직도 요원한 狀態인 것이다.

더욱이나 '60年以後 先進國에 依하여 猛烈한 威勢로 뺏쳐나가고 있는 世界企業의 進出로 말미암아 資本力·競爭力은 國內의으로도 위축할 可能性이 크며 各種借款위주의 企業設立은 벌써 資本力競爭의 一部障地를 開防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것은 開發途上國들이 오래동안 民族資本의 形成이 거이 不可能하였다는 것에 緣由된 것이어서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 開發에 依한 國民經濟力의 伸張과 經濟活動을 貯蓄力培養에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1968年에 投資需要不足額의 61%가 海外資本에의해 충당되고 그나마 15%가 財政資本에 依하여 充當되었다는 것은 韓國企業의 資本力이 아직도 他力依存的 탈을 벗어나지 못한 證佐라 하겠고 나아가서는 借款企業에 不實企業中이 接躡하여 생겨나고 있는 것도 資本力形成過程의 脆弱性을 露出한 것이라 하겠다.

또 外資企業의 內資動員用途로서 龍大한 額數의 現金借款 導入이 企圖되고 있는데 對하여 輸出 實績으로 보아 그 程度는 無難한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樂觀論이 있는반면 그것이 通貨量의 民間部門에 壓迫을 주고 따라서 強制貯蓄의 效果가 있을 것인데 反面 民間의 資本力 形成을 沮害하는 要因이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다.

技術力의 國際競爭力은 아직 搖盪期以內에 있는 形便이다.

獨自의인 技術開發實績이 全無하다시피 되어 있고 技術 및 研究開發은 短時日內에 손쉽게 되는 일이 아니므로 오히려 우선 技術導入과 教育 投資에 힘써야 할 段階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技術格差야 말로 先進國과 後進國을 갈라놓는 基準이며 經濟開發에 있어서 資本力 以上の 比重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學者가 많다.

國際社會의 階層化가 技術格差에서 오며 그것이 바로 國際政治의 力學關係에도 密接한 關係를 갖는다는 것을 슈라이버는 그의 名著 “아메리카의 挑戰”에 名白히 밝혀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經濟의 國際的인 技術競爭力은 다음 세가지의 問題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勞動吸收産業이고

둘째는 主要産業育成의 問題이며

세째는 技術 내쇼널리즘의 影響이다.

우리나라의 輸出産業이 極히 後進産業이면서도 政府主導型의 支援下에서 높은 伸張率을 보인 것은 先進國에 대하여서는 勞動吸收産業을 主軸으로 하는 輸出의 力點을 그리고 下位國家에 대하여서는 中位産業을 主軸으로 할 수 있다는 데에 原因이 있다.

한편 技術革命으로 特徵지을 수 있는 先進國에

서는 벌써 超工業社會의 出現이 곧 期待되어 製造產業이 一面으로는 電氣—電子—化學—宇宙科學複合體로 轉化되고 또 一方 오트메이손과 컴퓨터라이저이손이 結合되어 全產業의 勞動節約產業化가 거의 完了되고 있다.

分類에 依하면 出荷 百萬원 當 使用勞動者數가 1.2人 以上은 勞動吸收產業으로, 1.1~0.9人은 中位產業으로, 0.9未滿은 勞動節約產業으로 보는바 技術이 別로 發達되지 못하고 있는 反面 勞動力이 豊富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 低賃金이 오히려 「메리트」가 되어 家具·皮革·雜品·衣服·精密機械·木材 等 裝置產業이 아닌 勞動需要가 不可避하게 많이 드는 產業이 國際競爭力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製品中에는 先進國을 相對로 이미 相當한 實績을 올리고 있는 것도 있으나 對象國 選定을 잘하고 下位國의 競合에 이기면 長차 有利하리라고 展望되는 製品生産業이 많이 있다.

또 中位產業에 屬하는 金屬製品·一般機械·窯業·非鐵金屬·電氣機械·纖維 等은 아무리 機械化하여도 一定한 勞動力이 所要되는데 다만 相當한 水準의 技術이 必要하므로 技術者 및 技能工의 養成에 힘쓰면 이것은 先進國과 競合하여 下位國에게 輸出產業으로 進출할만한 競爭力을 가지게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外債의 進出과 더불어 導入되기 마련인 技術導入 내지 提携를 꾀하면 基礎分野가 狹약하기는 하나 天分이 豊富한 國民의 技術水準을 相當히 急速하게 開發養成시켜 勞動節約產業에의 進出도 可能한 것이다.

끝으로 主役產業의 育成問題이다. 資本力이 弱하고 技術水準이 低位인데다가 開發과 輸出을 서둘러야 할 形便으로 輸出產業이 目前的 時急한 事情으로 因하여 무엇이든 輸出되는 것이면 좋다고 하는 總和式 輸出政策은 輸出主役產業의 育成을 疎忽히 하는 傾向을 惹起시킨다고 하겠다.

따라서 國際分業이나 生産費比較說에 依한 貿易의 利益은 輸出先進國에 있어서 主役產業이 擔當하고 있음을 證明하는 것이므로 우리도 이러한 側面에서 主役輸出產業의 育成이 所望스럽다고 할 것이다.

販賣力競爭에 있어서는 政府의 支援에 거의 全

面的으로 依存하는 形便이어서 輸出企業의 獨立的인 開拓은 將來의 큰 問題가 되고 있다.

貿易의 世界進出은 企業의 販賣力과 販賣熱에 비릇하는 것인데 輸出金融 其他 輸出에 隨半하는 特惠나 노리는 販賣力을 가지고는 도저히 國際競爭力을 갖추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競爭對열에의 參加가 어려운 實情이다.

따라서 輸出마케팅時代에 있어 海外外交官吏들에게 販賣競爭을 全的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輸出企業自體로도 보다 活潑한 市場開拓에 努力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企業體質의 問題인데 一般的으로 우리의 企業은 健全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漸次 近代經營方式의 導入과 近代化의 方向에 따라 改善되고 있다.

이와같은 傾向은 輸出業體에도 同一한 구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도 政府의 支授과 特惠에 편승한 虛弱體質의 企業이 許多한 實情에 있다.

한편 產業體制 乃至 產業構造改善에의 問題도 時急하다고 하겠다.

開發—外資—輸出의 編制下에 計劃된 輸出產業體制는 許多한 虛點을 露呈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의 첫째 문제는 產業構造의 跛行성과 隸屬性이다.

即 產業間의 不均衡, 企業間의 不均衡, 市場의 制限, 國際價格과 國內價格의 格差等 헤아릴 수 없는 跛行성을 內包하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原資材構入의 選擇權, 經營干與 等의 隸屬性을 수반하는 產業體制에 對한 抵抗要因을 不斷히 마련하고 經濟開發의 窮極의 目的인 自立經濟를 망실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國際競爭力의 또하나의 要因으로서 資本蓄積은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을 베풀 수 있는 經濟環境을 外國借款이나 財政投融資에 依한 若干의 大工場建設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經濟構造의 後進的인 特質을 根本的으로 清算하는 過程에서 만 이룩된다.

勿論 構造改善을 위하여서는 經濟政策의 根本的인 轉換이 必要하며 이것에 隨伴하여 當分間 調整過程에서 생기는 혼란과 消費水準의 下落

도 감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健全한 經濟構造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外國으로부터의 借款과 援助는 國民經濟의 成長에 보다 一層 奇與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製品의 國際競爭力은 品質價格 및 品種으로 나눌 수 있다.

品質은 技術과 關聯되는 것이나 이른바 「머천다이징」에 있어서는 보다 큰 努力이 必要하다.

날로 尤甚하여져가는 國際貿易競爭에서 商品의 品質과 「머천다이징」은 必須의 것이며 종종 일어나는 クレ임은 지금 形便으로는 政府나 其他 關係機關의 徹底한 事前檢査의 必要性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價格競爭도 貿易競爭에 있어서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要素이다.

勞動賃金이 低廉하다는 利點과 勞動生産性이 낮다는 難點을 품은채 競爭에 參加하고 있는 輸出商品의 價格이 아직도 企業自體의 採算的인 競爭力보다도 政府의 支援에 依存하고 있다는 것은 生産과 輸出努力에 있어 크게 改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政府의 價格支援이 結局 國民負擔으로 전가되고 그것이 바로 企業生産에 反映된다는 惡循環을 언제까지나 持續할 수 없다는 것은 當然한 結果라 하겠다.

지금까지 國際競爭力의 概略的인 要因分析을 살펴보았는데 어느 것에 있어서나 제대로 自體競爭力을 갖고 自信있게 무역 경쟁에 參加하는 것이 아니고 政府의 強力한 支援에 依하여 海外市場에 對處하고 있다.

이것은 經濟開發이나 工業化의 初創期에는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輸出産業體의 自體強化의 意欲과 實踐없이는 根本的인 解決이 될 수 없으며

國際競爭에서의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고 하겠다.

4. 結 言

우리 나라의 輸出産業이 國際競爭에 參加하고 輸出立國에로의 길을 模索하는데 있어서 아직은 日淺한 形便이나 政府와 輸出企業이 一體가 되어 꽤 큰 成果를 올리고 있다고 하겠다.

第一次經濟開發計劃의 初年度에는 56.7百萬弗에서 1937년에는 3億 6千萬弗로 1968年은 5億弗 그리고 1969年에 이르러서는 7億弗로 增加되었고 1970年에는 大望의 10億弗高地를 達成하여 刮目할만한 輸出伸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輸出增加의 內容이 輸出企業의 自體競爭基盤에 따른 것보다는 政府의 支援이나 外資나 또는 여러가지 側面에서의 過保護下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點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經濟開發을 통한 自立經濟에로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輸出增加는 過去 어느 때보다도 必要하며 또 그것을 爲하여서는 보다 큰 部分의 國力を 傾注시켜야 되는 차제에 있어 앞에서도 분석하였듯이 결코 國際貿易環境은 우리에게 有利하게 展開되고 있지 못한 實情이다.

그러므로 政府의 支援努力만 가지고는 힘난하고도 더욱 더 치열해가고 있는 貿易戰爭에 이길 수 있는 土臺를 構築한다고 하는 것은 不可能한 것이다.

따라서 輸出業體는 政府에의 지난친 依存을 버리고 企業自體가 自發的으로 國際競爭力 基盤을 擴充하도록 하는 對策이 必要할 것으로 보며 또한 그러한 方案이 模索되어 70年代의 構造的 變化에 대처해야 할 것이며 실속있는 開發이 이루어 지도록 모두가 努力을 傾注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原州間 嶺東高速道路 着工

1971. 3. 24